

일부 저축은행 대표, 회장 후보자에 무리한 각서 요구설

저축銀중앙회장 선거, 유예론 제기

노조 “회원사 과도한 지배 개입”
갑질 의혹 등에 회추위 교체 요구
중앙회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일축
한이헌 후보 사퇴... 2명으로 압축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장 선거가 진흙탕 국면으로 빠져 들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노동조합이 일부 회원사 대표의 ‘갑질 의혹’을 제기하면서 회장후보추천위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것.

사모금융노조 저축은행중앙회지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일부 회원사 대표가 회장 후보자에게 임직원의 연봉을 삭감하고, 회장의 고유권한인 중앙회의 인사 등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각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5일 회장 후보자와 연관 있는 A저축은행 김 모 팀장이 중앙회 부서장에게 연락해 임직원의 급여데이터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면서 “회장 후보자에게 연봉 삭감과 같은 각서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원사의 갑질 횡포를 떠나 중앙회에 대한 과도한 지배 개입”이라며 “중앙회의 역할과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같은 일부 회원사의 갑질이 차기 중앙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부터 저축은행 지부장단회의 또는 이사회에 소속된 일부 회원사 대표가

지속적으로 중앙회 전무이사 자리와 지부장단회의의의장에 저축은행업계출신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노조는 중앙회가 이같은 갑질에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지부장단회의가 중앙회의 예산통제 권한과 이사회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회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되고, 저축은행 간 신용질서 확립과 고객 보호라는 중앙회의 설립 목적이 훼손돼 왔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에 “중앙회는 회장 선출을 담보로 각서 등을 요구하는 일부 회원사의 회추위원을 교체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회장 선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추위를 전면 재구성함과 동시에, 필요할 경우 오는 21일 중앙회장 선출 총회를 즉각 유예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에 대해 “노조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다”면서 “저축은행의 지부장단회의에 예산 심의 권한이 있는 것은 맞지만 단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 뿐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중앙회 입장에서도 각종 현안에 대한 저축은행 업계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부장단회의와의 관계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앙회는 저축은행에 대한 중앙회의 조사권 행사와 자율규제 기능 및 광고심의 규제가 회원사의 입김으로 위축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제18대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 중 한 명인 한이헌 전 국회의원(75)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치러지는 차기 회장 선거전은 남영우 전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65·기호 1번)와 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61·기호 2번)으로 압축됐다.

/홍민영 수습기자 hong93@metroseoul.co.kr

“신한금융그룹, 성평등 지수 높다”

블룸버그, 국내 기업 최초로 선정

신한금융그룹은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블룸버그가 발표한 ‘2019 성평등 지수(Gender-Equality Index·GEI)’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성평등 지수(GEI) 우수기업은 미국 블룸버그(Bloomberg)사가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시총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인력 관련 내부통계 ▲여성인력 운용 정책 ▲지역사회 공공지원 활동 ▲성평등 관련 상품·서비스 등 4개 부문의 약 70개 지표를 평가해 선정, 발표한다.

이번 발표된 2019년 성평등 지수(GEI) 우수기업에는 전세계 36개국 230개사가

선정됐다. 신한금융은 미국 은행 오브 아메리카, 프랑스 BNP파리바, 일본 미즈호 그룹 등 글로벌 금융사와 함께 선정됐다.

신한금융은 2010년 국내 금융회사로는 처음으로 여성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 바 있으며, 여성인재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그룹 여성리더 멘토링 프로그램인 ‘신한 쉬어로즈(Shinhan SHeroes)’를 신설해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 경연인 인사에서 신한 쉬어로즈 1기인 왕미화 부문장과 조경선 부행장이 여성 임원으로 발탁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BNK부산銀, ‘은행업 재설계’로 혁신 선언

상반기 경영전략 회의

BNK부산은행이 기존 낡은 은행업의 틀을 과감히 깨는 혁신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은행이 되자며 ‘은행업 재설계(Redesign Banking)’를 선언했다.

부산은행은 지난 16일 기장연수원에서 경영진 및 부실집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경영방침을 결정, 전략 방향을 공유했다고 1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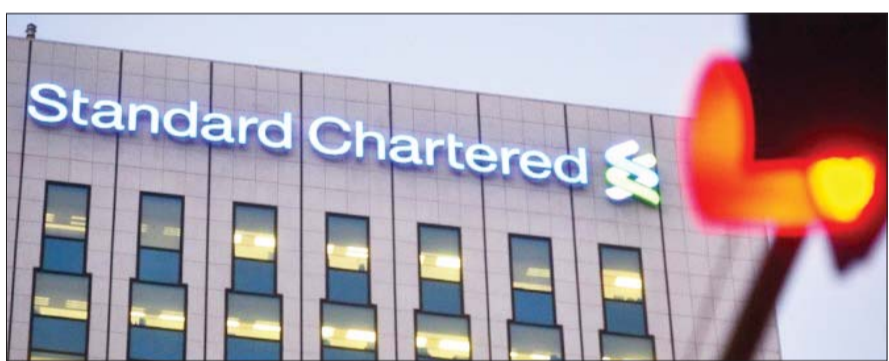
올해 부산은행의 전략방향은 ▲고객 중심 ▲지역중심 ▲디지털중심 ▲혁신 지향 등 4가지다. 이를 위해 고객가치 실현을 위한 고객중심적 마케팅 추진, 금융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채널 및 업무 혁신, 고객지향적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고객의 생활 속, 마음 속 은행’ 구현, 소비자보호 강화 및 공유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과의 동반성장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빈대인 BNK부산은행장은 “모바일 발달에 따른 셀프화 등으로 인한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감소 추세에 따라 창구에 오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고객’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객을 보는 관점을 비롯해 데이터와 디지털을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생각의 대전환’으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SC제일銀, SC그룹서 1000억 투자 유치

6000억원 후순위채 발행
ROE 등 수익성 지표 개선



/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이 스탠다드차타드(SC) 그룹으로부터 1000억원을 추가 투자받는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6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SC그룹 인수조건 10년 만기 원화 후순위채권(6000억원) 발행과 2019년도 중간배당(5000억원) 지급을 통한 자본구조 개선 결의안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간배당 규모보다 1000억원이 많은 후순위채권 발행 및 인수를 통해 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형식이다.

이로써 SC제일은행은 1000억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

자본비율 상승과 자본구조 개선을 통한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수익성 지표가 개선될 방침이다. 오는 3월에는 BIS 비율이 16% 중반대를 유지한다는 것이 SC제일은행 측 설명이다.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은 “국내 은행 중

가장 선도적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자본구조 및 적정성 수준을 고려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SC그룹의 투자 확대도 이루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 최고의 국제적 은행’ 면모를 지속적으로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리은행, 벨소프트와 손잡고 외환업무 강화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환전업무 강화와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벨소프트와 외환업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한영 우리은행 외환그룹장, 이종일 ㈜벨소프트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사는 환전, 송금 등 외국환업무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환전에 필요한 외국통화 조달을 지원하고, 벨소프트는 무인환전기기 등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사의 업무 역량을 공유할 계획이다.

㈜벨소프트는 2018년 무인환전서비스를 출시한 핀테크 업체로, 지하철 김포공항역, 남산타워, 주요 호텔 및 쇼핑몰 등 13개 장소에 무인환전기기를 운영중이다.



우리은행이 지난 16일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벨소프트와 ‘외환업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송한영 우리은행 그룹장(오른쪽)이 이종일 벨소프트 대표이사(왼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올해 말까지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인천공항 등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하는 비대면 환전서비스를 벨소프트의 무인환전기기를 통해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홍민영 수습기자

KEB하나은행, 피후견인 재산 관리 나선다

울촌과 ‘임의후견·신탁제도’ MOU

KEB하나은행은 지난 16일 서울시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법무법인울촌과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의 연구, 활용, 발전과 대중화를 위한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제휴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의 이용을 통한 피후견인 재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향후 정기세미나와 연구 활동 등으로 임의후

견 및 신탁제도의 저변을 확대하고, 금융기관과 전문후견인의 조력 제공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후견업무의 두 축인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대한 노하우를 상호 공유한다. KEB하나은행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보호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법인 울촌은 피후견인의 개인 특성에 맞춘 법률자문 및 신상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문호 기자 kmh@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 전무(사진 오른쪽)와 김동수 법무법인 울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가 지난 16일 서울시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회초년생 위한 ‘NH새내기직장인대출’

NH농협은행 최대 300만원 한도

NH농협은행은 직장에 갓 입사해 대출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을 위한 신용대출상품인 ‘NH새내기직장인대출’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NH새내기직장인대출은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 중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또 대출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0.8%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최저 3.43%(2019년 1월 16일 기준)까지 가능하다. /안상미 기자